

- 주요 뉴스: 7월 FOMC 개최 예정, 금리인상 폭과 향후 통화정책 관련 언급에 관심
 - 미국 재무장관, 광범위한 경기침체 징후는 보이지 않는 상황
 - ECB 총재,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시까지 점진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방침
 - 중국 국무원, 고용 및 물가안정 등을 통해 3/4분기 경제회복을 강화할 계획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실적과 국채금리 하락 등이 영향

주가 상승[+2.6%], 달러화 약세[-1.2%], 금리 하락[-16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기업실적 관련 기대감 등으로 매수세 강화
유로 Stoxx600 지수는 은행주 및 에너지 관련주 강세 등으로 2.9%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ECB의 예상보다 큰 폭 금리인상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3%, 1.8%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7월 S&P 종합 PMI 등 일부 경제지표 부진 등이 원인
독일은 역내 경기침체 우려 확대 등으로 10bp 하락

※ 원/달러 환율(주간) 1.0% 하락, 한국 CDS 하락

		7/22일	7/15일	전주말대비			7/22일	7/15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3,961.6	3,863.2	2.55%	국채 금리 10y	미국	2.75%	2.92%	-16bp
	유럽	425.71	413.78	2.88%		독일	1.03%	1.13%	-10bp
	중국	3,270.0	3,228.1	1.30%	CDS 5y	한국	47bp	51bp	-4bp
	일본	27,915	26,788	4.20%		중국	82bp	87bp	-5bp
	한국	2,393.1	2,331.0	2.67%	위험 지표	EMBI+	471	498	-27bp
환율	달러지수	106.73	108.06	-1.23%		VIX	23.03	24.23	-4.95%
	유로화	1.0213	1.0080	1.32%		WTI유	94.70	97.59	-2.96%
	엔화	136.12	138.57	1.80%	원자재	구리	334.9	323.5	3.52%
	위안화	6.7515	6.7572	0.08%		금	1,727.6	1,708.2	1.14%
	원화	1,313.0	1,326.1	1.0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7월 FOMC 개최 예정, 금리인상 폭과 향후 통화정책 관련 언급에 관심

- 이번 주 7/26~27일 FOMC가 개최.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0.75%p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부에서는 1.0%p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최근에는 월러 이사 등 점차 연준의 많은 주요 인사들이 0.75%p 인상을 주장
- 이번 FOMC 성명서 발표 이후 있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9월 FOMC 관련하여 특정한 내용을 언급할 경우 금융시장이 크게 놀랄 가능성도 존재
- 일부에서는 연준이 경기침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에, 향후 금리전망이 오히려 기존의 예상을 하회할 수 있다고 지적. 실제로 블룸버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2/4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0.5%.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되면 이는 금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이 된다는 의미
- 블룸버그의 Anna Wong은 파월 의장이 FOMC 기자회견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평가. 특히 인플레이션 목표(2%)를 달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동시에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밝혀야 한다고 첨언
- 한편 CME의 FetWatch Tool은 7월 FOMC에서 0.75%p 인상 가능성(80.5%)이 높은 것으로 제시. 9월 FOMC의 경우 0.5%p 인상 가능성(53.1%)이 좀 더 높고, 11월은 0.5%p와 0.25%p 인상 가능성(각각 42.9%, 42.3%)이 비슷한 수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장관, 미국에서 광범위한 경기침체 징후는 보이지 않는 상황

- 옐런 장관은 향후 일부 고용둔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것을 경기침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강조. 또한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전미경제연구소(NBER)에서 이를 경기침체라고 선언한다면 매우 놀랄 일이라고 부연

■ 러시아, 곡물 수출 합의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항구 오데사를 공격

- 외교부는 러시아가 오데사 흑해 항구 주변의 군사시설에 대한 폭격을 감행했다고 발표. 한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러시아의 행동이 곡물수출 합의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

■ ECB 총재, 인플레이션 목표의 달성 시까지 점진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방침

-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결국 중기 목표치(2%)에 이를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는 의견 피력. 한편 금리인상의 폭은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경제지표들을 참고하여 결정하겠다고 부연

■ ECB 설문조사, 장단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향

- 7월 조사에 따르면, 4월에 비해 금년과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이 모두 올랐으며 (각각 6.0%→7.3%, 2.4%→3.6%),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도 상향 조정(2.1%→2.2%). 한편 금년과 내년 성장률 전망은 하향(각각 2.9%→2.8%, 2.3%→1.5%)

■ 중국 국무원, 고용 및 물가안정 등을 통해 3/4분기 경제회복을 강화할 계획

- 3/4분기 굳건한 경제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 특히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소비와 고용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에 주로 사용하던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검토
- 한편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국공상연합회 등과 함께 성명서를 공개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민간기업의 개혁 및 발전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 또한 이를 위해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연준의 통화긴축 영향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

- 대변인은 연준의 통화긴축 속도를 면밀하게 관찰할 방침이라고 언급. 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안정적인 경제 성장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해있다고 평가. 한편 최근 위안화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

■ 일본 재무상, 금리인상은 경제회복을 저해할 우려

- 슌이치 재무상은 통상적으로 금리인상이 경기하강을 초래하는데, 지금은 이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 또한 일본은행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초완화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존중한다고 발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25 현지시각 기준)

- 미국 6월 시카고 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 7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고물가 해결 없이 경기둔화 우려만 증폭시킬 소지 - WSJ

(Jerome Powell's Fed Pursues a Painful and Ineffective Inflation Cure)

- 현재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문제 등 연준이 해결할 수 없는 요소들이 주요 원인. 이를 고려할 때 금리인상을 통한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은 부적절. 오히려 이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가계의 고통을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
- 정부와 의회 차원의 공급 설비 확충, 양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동자의 노동시장 복귀 유도 등이 최근 고물가 상황에 적합한 대응. 또한 생산시설의 국내이전을 위한 유인책 제공 등도 일자리 공급 확대와 공급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ECB, 과거 유로존 재정위기에 상응하는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 - Financial Times

(Markets will test the ECB's resolve)

- ECB는 금리인상과 변속보호기구(TPI) 도입 발표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 그러나 TPI의 세부 내용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평가가 많아 이탈리아와 독일 간 국채 스프레드 확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 이는 과거 유로존 재정위기와 유사한 상황. 당시에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매우 낮아 ECB 드라기 총재가 양적완화를 약속하여 문제를 해결. 하지만 최근 역내 인플레이션은 매우 높은 수준이기에 ECB가 구사할 수 있는 통화정책 옵션은 제한적
- 이에 더해 TPI는 원조 대상 국가의 안정적 재정 및 거시적 경제정책을 요구. 그러나 이탈리아는 드라기 총리 사임으로 해당 요건 충족에 난항이 예상

■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시에도 상당 기간 높은 수준 지속 전망 - WSJ

(There Are Signs Inflation May Have Peaked, but Can It Come Down Fast Enough?)

■ 전세계적인 파업 증가,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를 촉진할 우려 - 블룸버그

(World's Key Workers Threaten to Hit Economy Where It Will Hurt)

■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제한, 장기적으로 자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 - WSJ

(Russia's Natural-Gas Game Comes With Economic Risk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eif.or.kr